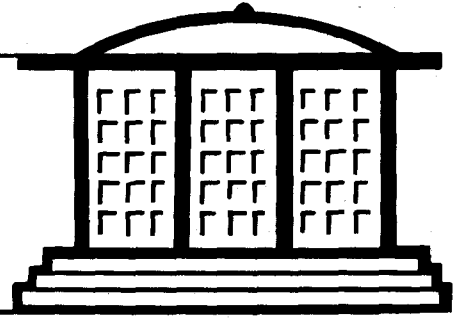


소식

기관단체



■ '87 하반기 한국영양사로 기술강습회



(한인규 회장)

한국영양사료학회(회장 한인규)가 오는 12월18일(금)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부산동아대학교 교수회관에서 '87후반기 한국영양사료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과 미원식품(주)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번 기술 강습회의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최숙중 이사장, 마점술 교수, 정근기교수, 백인기 교수, 하종규 교수, 이봉덕 교수, 김대진 교수, 맹원재 교수, 안병홍 교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내 영양사료학회(T.0331-43-3803)로 문의바람.

■ 국산옥수수 수매가 14% 인상

농협중앙회의 87년산 국산옥수수 수매가격이 14% 인상하여 12월중 수매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금년도 수매량은 6만t으로 이중 75% 정도를 배합사료에 사용케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인한 축산업계의 추가부담은 약 13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등급별 수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40kg 가마당 ₩ 14,200
- 2등급 40kg 가마당 ₩ 13,080
- 등외품 40kg 가마당 ₩ 9,480

■ 농정현안 간담회 개최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30일 뉴월드호텔에서 단체장들과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입법예고

농림수산부 공고 제87-43호로 가축전염병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은 주요동물의 수입시 수입전 검역장소에 대한 사전승인과 검역실무에 관한 규정을 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등 검역업무의 권한을 검역소장에 대폭 위임하는 내용이다.

■ 제28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



농업기술상 본상 최 종 명
생년월일: 서기1941년 5월 13일
주 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 10동 1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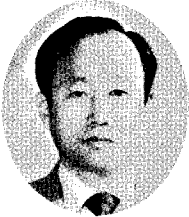
농업기술상 장려상 김 의 기
생년월일: 서기1946년 5월 5일
주 소: 전북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482



흙의 문예상 오 유 권
생년월일: 서기 1928년 12월 1일
주 소: 서울 강동구 석천동 163-12



흙의 문예상 유 승 휴
생년월일: 서기 1920년 1월 4일
주 소: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03-4



농업과학상 박 용 환
생년월일: 서기 1934년 8월 20일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271-20



농촌지도지공무원봉사상 김경태
생년월일: 서기 1949년 2월 13일
주 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4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국 농민대표가 석한 가운데 제28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가 12월 3일과 4일 개최되었다.

全國大會 日程 및 行事總括表 (참가회비: 1만원)

日 時	場 所	行 事
12월 3일 (木) 09:00~17:00	서울 중구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世宗文化會館別館	①開會式典②綜合大會③農業技術賞施賞 ④特別招請講演⑤농민들의 광장
12월 4일 (金) 09:00~17:00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301-87 農業技術振興館	①分科別農業技術開發討論會 ②87代議員總會·대의원의밤

대회 하루 전날인 12월 2일(水)에는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우수농업기자재종합전시회가 열렸다.

본대회의 꽃인 농업기술상 본상에는 경북칠곡의 왜관에 있는 수도원 농장장 최중명씨가 수상하였다.

최중명씨는 충북 증원군 산척면 송광리 광동부락에서 끼니도 이어가지 못하는 빈농의 4남매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10살때 전염병으로 3일간격으로 부모를 잃고 둘째형마저 6.25로 전사하여 국민학교도 중퇴할 만큼 역경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연구하고 노력하여 독학으로 유전공학을 이용한 동양란 증식에 완전 성공하고 화훼 딸기 과수 묘목 등 무균묘 생산보급 등 최첨단 영농기술을 실현시킨 입지전적 인물이다.

씨의 오늘에 영광이 있게된 25세대의 경북 칠곡군 왜관의 카톨릭 수도원 농장장으로(수사) 옮긴 것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다. 씨의 수상은 역경에서 낙심할 수도 있는 농민은 물론 근로자 청소년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 수의사회지 창간30주년

1957년 12월 가축방역과 수의기술보급의 광역화와 축산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30년전 창간한 대한수의사회지의 (발행인 대한수의사 회장 정창국) 창간 30주년 기념축하연이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12월 12일(오후 5시) 개최된다.

■ 제5회 전국양돈인대회 성료

- 제3회 전국 돼지고기요리경연대회 및 전시회 성황리에 마쳐 -



△ 대한양돈협회 주최, 돼지고기요리 경연대회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는 지난 11월24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전국 양돈인대회와 제3회 전국돼지고기요리경연대회 및 전시회를 1800여명의 양돈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양돈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성장발전 시키며 농촌경제의 부흥과 국가 식량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이날 결의문 및 대정부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 의 문

우리는 최근 돈가의 하락과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등 양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현실적 당면문제를 직시하고, 우리의 생업인 양돈업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하여 우리 전국의 양돈인은 불굴의 투지를 한데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실천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一. 우리는 최근 돈가 폭락이 우리의 과잉생산에 그

원인이 있음을 통감하고 번식돈의 과감한 감축으로 적정사육규모 유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우리의 돈육의 품질향상과 생산원가 절감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양돈 불황의 극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돈육의 소비촉진과 수요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양돈농민의 권익보호와 이익증진을 위한 우리 생산자 단체의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양돈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장애되는 제반 요인의 개선과 합리적 정책지원을 갈구하는 우리의 건의사항 관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87년 11월 24일

전국 양돈인 일동

대정부건의문

1. 양돈산업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축산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가축의 사육은 농촌의 주요소득원이 되고 있으나, 가격의 불안정과 생산기반의 취약으로 양돈농민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여 왔다.
2. 그동안 우리 양돈농민은 돼지사육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출지향적 선진공업화의 산업정책과 국제무역수지흑자에 따른 통상 압력 및 공산품의 교역증진 수단으로 양돈농민이 남득할만한 하등의 조치도 없이 축산물의 시장개방이 진행되어 양돈농민은 정책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으로 휩싸여 있다.
3. 이에 우리 30만 양돈농민은 무엇보다도 생업의 안정적 보장과 보호조치가 절실한 과제임을 통감하고, 시장개방에 앞선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전폭 수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음

1. 양돈 원자재의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조치
양돈 원자재인 사료·동물약품·축산기구 등의 관세가 경쟁상대국보다 월등히 높아 축산물의 국제경쟁

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부가세는 일반 공산품과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으로써, 양돈농민에게만 과중한 세금부담을 안겨 주고 있으므로 이를 전폭 감면 조치해야 한다.

1. 양돈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자조금제도 실시

우리가 생산한 양돈산물의 유통개선, 가격안정, 수요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 스스로가 돼지 판매시마다 일정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오니,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서 양돈산업의 자조금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전국 양돈인의 주장이 관철될 때, 우리는 양질의 양돈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위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양돈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4천만 국민 앞에 밝히는 바이다.

1987년 11월 24일

전국 양돈인 일동

■한국제분공업협회 임시총회

한국제분공업협회(회장 김종성)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정계에 나선 이회철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회장 권한대행에 김종성 대한제분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신임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원맥가 등 제분조건이 안정돼 있는 시점에서 각 회원사들은 단합과 협동을 통해 업계발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덤핑 등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회원사간의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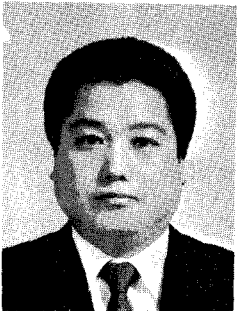
■축협, 시범가축사육시설 기공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10월29일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신두리에 있는 축산종합연수원에서 시범가축사육장 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할 주요내용을 보면 2인 1가족 운영규모, 자가경영방식, 기록관리 시범으로 경영성과의 정밀분석, 연수, 실습, 견학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제사 사육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산란계사는 6,000수 규모의 동하계 절충식이며 분뇨는 기계수집식이다.

■ 한국 축산경영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류제창 회장)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류제창)가 오는 12월12일 오전 10시부터 건국대 학생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일정

가. 연구발표(10시-16시30분)

- 1) 한우경영의 경제성 분석
..... 하서현, 이병오, 신해식(강원대)
- 2) 목초 및 사료작물재배의 경제성 분석
..... 정승래(축협중앙회)
- 3) 돼지가격전망 지표설정 방법고찰
..... 이수현(농림수산부)
- 4)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제분석
..... 제갈욱, 조석진(영남대)
- 5) 해외축산개발 전략에 대한 연구
..... 안효일(전주우석대)
- 6) 낙농경영의 경제분석..... 박종수(충남대)
- 7) 영국MMB의 유가결정과 원유수급 조절방식
..... 이병오(강원대)
- 8) 비육돈 생산비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 권오욱(영남대)
- 9) 낙농경영실계에 관한 연구..... 류제창(건국대)
- 10) 양돈경영합리화..... 오세진(세진농산)
- 11) 낙농경영합리화..... 조태철(설성목장)
- 12) 양계경영합리화..... 송상정(아람목장)

나. 정기총회 (16시30분 - 17시30분)

안건 : 결산보고, 평생회원패 증정, 기타.

■ 축협중앙회 안양지점 개점식

축협중앙회는 12월 3일(목) 오전10시 축협중앙회 은행점포 안양지점 (지점장 이상운)을 신설하고 관계인사를 비롯 조합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가졌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68 - 35
- 전화(안양 0343) 48 - 3355 ~ 8

■ 해외영농정착 전략에 대한 심포지움



△ 해외영농정착 전략 심포지움

전국우석대학 부설 해외영농개척연구소(소장 안효일 박사)와 농협중앙회 공동주최로 지난 11월20일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해외영농정착 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농업분야 단체, 학계,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농민 등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화 시대에 개발 여지가 많은 세계속의 광활한 자원을 식량화 하고, 한국인의 해외농업분야 인력진출을 모색키 위해 실시되었다.

■ 제53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제53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설동섭)가 지난 11월26일(목) 오전11시 충남도청회의실(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앙협의회 위원 및 간사, 각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축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결기 돼지전염성 위장염 방역강화 및 돼지가성 광견병 혈청검사 철저방안을 검토하고 가축전염병 예

방약집종 강화방안 및 동절기 가축전염병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하는 등 기타현안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 축협중앙회 '87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협동조합 자율성보장 등 5개항 건의 -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11월 4일 서울 상봉동 소재 서울우유협동조합 회의실에서 87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갖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앙회정관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국 154개 축협조합장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양축농가의 생산활동을 안정시키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 △양축농가 지원정책 강화 △축산물수급과 가격안정 △생산지원과 유통기능의 축협일원화 △가축시장 재산 무상양여 등 5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노태우민정당총재가 참석, 전국축협조합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노총재는「협동조합의 자율성보장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영세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동시에 이들을 가공식품 등 관련산업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식육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식육연구회(회장 한석현)는 지난 11월 21일 건국대학교 이과대학에서 87년도 제 8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학계, 산업계 및 관련업계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구성육(Reform meat Products)의 제조-송계원박사, △부산물 이용한 제품개발-문영덕이사(진주햄), △육류 판매 제도의 개선방안-이영진박사(축산업조합 중앙회) △혈액의 육제품생산 이용방안-송인상박사(한국식품공업협회)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한석현회장이 재선되었다.

■ 「농업박물관」 개관식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윤근환)는 한국농업의 역사적 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농업사와 농민문화를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유일의 「농업박물관」을 설립하고 11월 18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 농수산위원,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장, 오봉국 서울대농과대학장을 비롯한 농업분야 전문가 및 학계, 농민대표등 500여명이 참석했는데 특히 윤근환 농협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농업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농민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발굴 보존하는데 농협이 앞장서 명실상부한 농업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을 연 농업 박물관 건물은 1931년에 건축되어 56년동안 우리나라의 근세 농업발전과 역사를 같이해온 사적 가치가 있는 보존건물로 연건평 1,042평 규모에 보물급을 포함한 각종 농업유물 1,611점이 소장 전시되었다.

이 유물들은 전국 200만 농민조합원과 4만 7천여 농협 임직원들이 3년동안 3차례에 걸쳐 수집운동을 펼쳐 모은 것으로서 중요한 사료(史料)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순수한 이 농업박물관은 농민의 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게 된다.

이 농업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변화 발전되어온 농업유물인 농사기술, 농사도구, 곡물, 가축, 협동유적 등을 전시하였는데 특히 화진경작지, 농업연사표, 농가월령도 등은 역사상 최초의 전시물로

주목된다.

농업박물관의 주요 전시내용을 보면 △ 1층 선사시대실 55점, 삼국시대실 50점, 고려조선시대실 11점

△ 2층 : 농기구분포실 177점, 농가월령실 250점, 협동유적실 9점

△ 3층 : 현대농업실 960점 등 모두 1,611점이 전시되었다.

농업박물관은 이번 개관에 이어 12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 유료로 공개되는데 월요일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 장소 :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 전화 : 735-7481, 교환 3020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설립2주년 기념행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이우재)가 12월 5일 동연구소에서 설립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동연구소는 그간 농업·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날 기념행사 1부에서는 단국대 김동희교수의 “변모하는 중공의 농촌”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연락처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전화 : 312-1606)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1동 383-147

■ 낙농문제 타개방안 세미나 개최

- 11월 6일, 낙농육우협회 주최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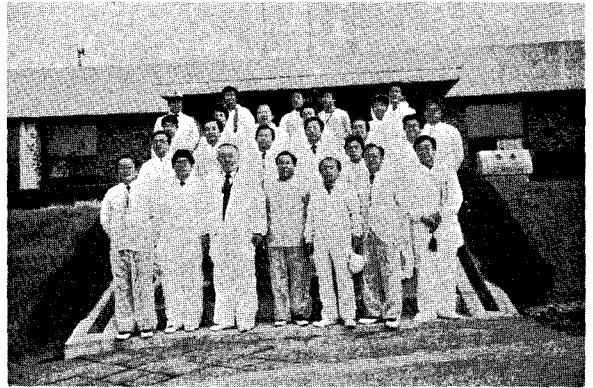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의수)가 주최하고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한 낙농문제의 타개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1월 6일 한국무역회관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의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전국낙농가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생산자가 구심체가 되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산자 주도형으로 정착시키는 것만이 국제적으로 한국낙농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사료곡물협회가 초청한 미국우유홍보기구의 낙농산업구조개선 전문가인 조셉 웨스트워터박사의 내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허신행박사가 「낙농문제의 실상과 발생배경」, 조셉 웨스트워터박사가 「미국낙농문제의 공동타개 프로그램」,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회장이 「한국낙농산업의 종합적 조정방안」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 한국가금학회 회원 선진지시찰



△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 방문 기념촬영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가 지난 11월 21~22일까지 1박 2일간 전국 학계 및 연구기관의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성과 오산지역의 양계농장 선진지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단은 21일에는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와 쌍용농장(대표 장대석) 및 홍일농장(대표 한순)을 차례로 견학하고, 특히 이날밤 시찰단과 농장대표들이 같이한 자리에서는 이론과 현장 사이의 차이점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이어 22일에는 오산소재 (주)한일농원을 방문하고 양계업체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시찰단은 최근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키 위해 구성된 바 급속도로 발전돼 가는 양계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산학협동체제가 활성화 되리라 기대된다.

■ 한국가축번식학회 '87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축번식학회(회장 배대식)는 지난 10월 31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회장에 배대식박사(충북대 교수)를 선출했다.